

## 프린스턴大學의 Gest 東方書庫

許 璧  
(延世大 中語中文學科)

### 1

프린스턴대학은 지금으로부터 243년전인 1746년에 세워진 유서깊은 대학으로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Woodrow Wilson 과 4대 대통령인 James Madison 을 배출했고 아인슈타인이 20여년간 이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수 많은 과학자를 길러낸 명문 사립대학이다. 학생 수는 대학원생을 합쳐서 6,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종합 도서관인 Firestone 도서관에는 380여 만 권의 장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이밖에 학문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의 도서관이 여러 개 있다. 그중 Gest 도서관의 경우 원명은 'Gest Oriental Library and East Asian Collection' 인데 漢譯된 명칭은 '葛思德東方圖書館'으로 呼稱되고 있다.

Gest 도서관은 미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동양학 관계 유명 도서관으로 하바드대학의 Yenching 도서관과 쌍벽을 이루고 있다. 본 도서관은 창설자인 Guion M. Gest(1864~1948)의 이름을 따서 세워졌는데 그의 조상은 캐나다 사람이지만 그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군 복무까지 마쳤으며 한때는 독일과 불란서에 유학하여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귀국해서는 New York 에서 전선 배관 회사를 차려놓고 돈도 많이 벌었다. 주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한때는 중국의 北京까지 갔

었는데 눈병이 생겨 오랫동안 고생을 하던 중 당시 미국의 駐中 공사관의 무관이며 해군 중령인 I.V. Gillis 씨로부터 중국의 안약을 소개받아 눈에 넣어 효험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Gest 는 중국의 의약 관계 서적을 수집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Gillis 씨의 도움으로 단번에 500여 종의 2,000여 권에 달하는 중국 의약 관계 서적을 수집하게 되었다. 그후 점차로 수집 범위를 확대시켜 당시 보기 좋은 책, 희귀 선본, 총서, 내용이 기묘한 것 등 다방면으로 수집하게 된 것이다.

Gillis 씨는 장기간 北京에 근무하면서 중국 여자와 결혼까지 했었으며 부인의 명의로 개인 집도 갖고 있었는데 漢字도 많이 알고 중국어도 유창해서 北京 일대의 古書商人들과의 접촉도 많았다. 版本과 目錄學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당시 Gest 의 부탁을 받고 귀중 서적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었다고 한다. 사실상 그 당시는 中·日 전쟁이 한창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혼란의 와중에서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서는 아무리 愛書家라 할지라도 목숨이 귀중한 판에 장서가 눈에 들어올리가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Gest 씨의 서적 구입은 더욱 용이했을 것이며, 이는 그의 서적 구입 의욕을 더욱 부채질했을 것은 不問可知的 사실이다. 그 무렵 Gillis

씨가 Gest 씨에게 우송한 책이 2만 7천 권이었다고 하는데 모르는 해도 버려진 책을 집어온 거나 다름없이 저렴하게 구입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Gest는 미국에서 활약하면서 캐나다에 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집한 책을 캐나다의 Montreal에 있는 McGill 대학 도서관에 맡겨 놓았다가 1926년 2월에 정식으로 Gest 중국 연구 도서관으로 개관되면서 오늘날의 Gest 도서관이 탄생된 것이다. 1931년에는 7만 5천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 McGill 대학에는 중국 책의 진가를 아는 학자도 없고, Gest 자신도 무조건 McGill 대학에 기증하려고 하지 않게 되자 드디어 1937년에 Princeton 대학에서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된 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Gest 동방 도서관이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본 도서관의 장서는 프린스턴대학으로 이관된 후에도 프린스턴대학 측에서는 계속 동양학 관계 서적을 수집하여 1953년 6월에는 이미 13만 7,000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게 되었다.

## 2

Gest 서고의 善本은 Gieles 씨가 1941년 北京에서 작성했던 'Gest Library 書目'이라고 불리는 것이 최초의 도서 목록이었고, 이것이 바로 프린스턴대학이 자랑하는 Gest 서고의 '선본서목'의 효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서목은 당시 소장되어 있던 책을 형태와 시대별로 나열하는 원초적인 분류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도서 목록과는 그 거리가 매우 멀었다. 당시 Gieles 씨는 일반 중국어는 잘하는 편이었지만 古書를 분류할 만한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귀본인줄은 대강 알았더라도 그것이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에 속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다가 1945년에 北京圖書館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바 있던 목록학 분야의 전문가인 王重民씨가 미국 국회 도서관의 초청으로 미국에 온 다음부터 국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中國書籍을 정리하면서 선본 서목을 작성해 놓은 바 있

다. 그리고 나서 1946년에는 프린스턴대학의 초청을 받고 Gest 서고에 소장된 선본 도서를 감정하면서 서지학적인 주석을 달아놓는 작업까지 해놓은 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王氏는 당시 Gest 서고와 국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회귀 선본과 北京 도서관의 것을 서로 비교해 보았는데 經部에 속하는 것만도 70%가 서로 다른 것을 소장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集部에서는 약 50%가 서로 각기 다른 내용의 선본을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中國의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는 그만큼 미국의 국회 도서관과 Gest 서고가 北京 도서관에서도 찾아 보기 어려운 회귀 선본을 소장하고 있었음을 입증시켜 준 것이다.

1950년에 中國 근세사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뛰어난 철학자요 교육자인 대학자 胡適 선생이 또다시 프린스턴대학의 초청을 받아 Gest 도서관의 회귀 선본을 정리하고 감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胡氏는 Gest 도서관의 漢籍 도서를 거의 빼놓지 않고 정리하고 분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4년에는 프린스턴 도서관 간행물인 계간지에다가 Gest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선본과 기타 서적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영문으로 소상하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5년이 지난 1959년에는 自由中國에서 발행되는 서지 목록학 분야의 권위 있는 월간지인 「大陸雜誌」 19卷 10期에도 Gest 도서관 소장의 漢籍을 중국어로 소개함으로써 많은 중국 사람들을 또 놀라게 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 胡氏는 Gest 도서관의 연혁과 소장 도서의 회귀성을 소상하게 밝히고 소개하여 동양학 연구 분야의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胡氏는 비록 2년 동안 Princeton에 머물러 있었지만, Gest 도서관을 영어와 중국어로 미국과 自由中國에서 소상히 소개하였기 때문에 Gest 도서관을 각계에 알리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냈다. 그후 胡適 선생의 뒤를 이어서 Gest 도서관을 관장해 온 이는 中國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던 유명한 도서관학 분야의 전문가인 童世綱씨였다. 童씨는 24년 동안 Gest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Gest 도서관의 장서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류하여 오늘날의 도서관으로 받

진시키는 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으며 지금까지도 蠶絲처럼 오랜 기간 동안 Gest 도서관에서 근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Gest 서고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다.

Gest 서고의 서목 가운데 史部의 政書篇에 들어 있는 金陵機器製造局報銷清冊 등 15種은 정보 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나 신문사의 기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흥미 있는 자료인 바, 전 세계적으로 돌도 없는 희귀 자료인데 당시에 휴지와 같은 험값으로 구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Gest가 서거한 지 4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Gest 서고를 아끼고 애용하는 수 많은 교수와 학생 및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의 창업을 기리며 찬양하고 있음을 볼 때 Gest가 기여하고 있는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Gest 도서관에는 40여만 권의 귀중한 漢書籍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매우 중요한 도서관의 하나로 중시되고 있으며, 특히 中國의 漢醫學 方面의 古書는 세계 제일이라는 名聲을 떨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日本 書籍 이외에도 동양의 인도, 터키, 아랍 등 여러 국가의 서적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Gest 도서관은 1926년 2월에 정식 개관되고 나서 50여년간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특히 1955년에 프린스턴대학에 Dept. of East Asian Studies(동방어문학과)가 설치되면서 가일층의 활기를 띠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프린스턴대학의 동방어문학과가 설치와 동시에 명문 학과가 되면서 우수한 교수의 확보와 학생들을 배출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들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었던 훌륭한 도서관이 뒷받침이 되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을 보면 학과 설치와 동시에 학생을 모집하고 나서 도서 구입을 점차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 3

Gest 도서관은 프린스턴대학의 중심지인 East

Asian Studies가 사용하고 있는 Jones Hall의 3층과 Palmer Hall의 서쪽 부분의 3층과 4층을 차지하고 있는데, Jones Hall과 Palmer Hall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同一 건물로 착각할 정도다. Jones Hall에는 정기 간행물과 한국어 관계 서적 및 일부의 중국어와 일본어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참고열람실과 편목실 및 행정 사무실은 Palmer Hall의 3층에 있고 Gest 도서관의 책을 이루는 Chinese Collections와 일본 서적은 Palmer Hall 3층과 4층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태국,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몇몇 아시아 국가와 터키, 아랍 등 중동 지역 국가들의 장서도 Jones Hall과 Palmer Hall에 각각 분산 소장되어 있다.

Gest 도서관의 개방 시간은 여름과 방학 기간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평시에는 언제나 많은 이용자들이 Gest 도서관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도서관에서는 금연으로 되어 있고 음료수나 식품도 휴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용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책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부러울 정도다.

Gest 도서관의 장서는 원칙적으로 책의 종류와 교수, 대학원생 및 학부 학생 등으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해 주고 있다.

〈표 1〉 장서 대출 기간

종 류	교직원	대 학 생	학부생
일반 서적	1년간	1학기	8주간
四庫 희귀본	不可	不可	不可
20년 이내에 발행된 정기 간행물	8주	8주	8주
20년 이전에 발행된 정기 간행물	1년	1학기	8주
정기 간행물(정장 합본 되지 않은 것)	不可	不可	不可
필수 과목용 도서	1일	1일	1일
마이크로 필름	不可	不可	不可

도서 대출의 경우 전임 교원들은 대부분이 자기 연구실에다 빌려다 놓고 보며 대학원생이나 초청 교수 및 외부 학자들은 개인 연구실이 따로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Palmer Hall의 도서관내에 자그마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빌려다 놓고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학부 학생들만이 대출한 책을 기숙사 등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학원생이나 교직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서고를 출입하며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는 개방식 도서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Gest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미국인보다는 동양 사람들이 훨씬 많다. 한국어 관계 책임자는 김수원 여사 한 명뿐이고 日本語 관계는 6~7명의 일본 사람들이 고정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中國語 관계는 定期刊行物 분야의 劉興豐先生을 위시하여 20여 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中國內에 있는 어느 도서관으로 착각할 정도로 느끼게 된다.

善本目錄의 編印 과정을 살펴 보면 Gest 도서관이 소장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가를 직감할 수 있게 된다.

1950년부터 胡適先生은 프린스턴대학에 와서 Gest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동안 王重民 선생이 정리해 놓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정리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補充하여 설명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1965년에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경학 분야와 도서 판본 분야에서 의 최고 권위자이며 中華民國의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長이면서 國立臺灣大學 中國文學科教授였던 屈萬里씨를 특별 초청하여 1년 동안 Gest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희귀 선본을 전반적으로 재정리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과 주석을 가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일반 독자는 물론 전문가들에게도 희귀 선본 도서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屈교수는 먼저 王重民씨와 胡適 선생이 정리해 놓은 원고를 철저히 검토한 후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삭제시킬 것은 삭제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여 마침내 Gest 도서관 소장의 희귀 선본 도서의 정리 사업은 일단락을 짓게 된 것

이다. 따라서 屈교수의 정성과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는 Gest 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게 볼 수 있게 되었음은 매우 다행스러워 다시 한번 屈교수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屈교수가 최종 정리한 선본은 1974년 1월에 中華民國 台北의 藝文印書館에서 「普林斯敦大學葛思德東方圖書館中文善本書志」의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총 584 페이지로 되어 있는 본서에는 당시 프린스턴 도서관장인 Dicks 씨와 당시 프린스턴대학의 동방어문학과 교수였던 Frederick W. Mote(牟復禮)씨가 각각 영문으로 서문을 썼고, Gest 도서관장이었던 童世綱씨는 중국어와 영문으로 서문을 썼으며, 屈萬里교수는 中國語로 마지막 부분인 583, 584페이지에 각각 본서에 관한 跋文과 後記를 적어 넣었다. 屈교수의 跋文과 後記를 통해서 Gest 도서관 소장의 선본의 실상을 한층 더 파악할 수 있으며 善本書志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여러 가지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童世綱 관장의 서문을 통해서 Gest 도서관의 소장 도서가 미국에 있는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방 어문 관계 서적들보다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단연 톱 클래스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本誌의 凡例는 모두 11조로 되어 있는데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卷志의 分類方法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놓았다. 本誌에 수록된 문헌은 총 1,149종의 30,369册인데 四庫全書總目的 분류법에 따라 經·史·子·集의 四部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이를 經部 134종과 史部 242종, 子部 409종 및 集部 364종으로 분류해 놓았다. 이 가운데는 宋版本이 3종 778册이고 元刊本은 4종의 2,086册이며 明刊本이 1,084종 24,024册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淸刊本은 6종의 59册뿐이고 朝鮮舊刊本이 4종 35册을 차지하고 있다. 또 日本舊刊本 1종의 6册과 活字本 4종의 24册 및 稿本 7종의 160册과 抄本 36종의 3,185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明版本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淸內府銅活字本の 古今圖書集成 一部 5,020册과 淸內府木活字本聚珍版叢書 二部

1,412册 및 같은 木活字本 殿板二十四史 750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도 사실은 진귀본이기는 하지만 世間에 비교적 많이 유포되어 있으리라는 이유 때문에 本善本目錄에 편입시키지 않고 있다.

本書目的 後記에서 屈萬里교수는 “國立中央圖書館特藏組主任昌皮得先生, 編輯喬衍瑄先生, 皆精於目錄版本之學, 因以複本先後請其審閱, 承認正良多. …當時未能查悉其里籍行實者甚衆, 因有普大 圖書館之資助, 爰請蘇同炳先生爲之檢索方志等書, 計補苴四十餘人. 校勘之事, 則請楊慶章先生任之. 予復自校一過, 訂正舊稿約百餘處, 自排版, 迄竣事, 前後歷時半年餘…”라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이 善本書目を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내·외의 서지 목록 및 교정 방면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에 위촉하여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후 정리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屈교수께서 직접 교정을 보면서 100여 군데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 바로 잡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조판 과정에서 책이 나올 때까지만 두려 반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으니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어 완성된 것인가를 엿볼 수 있다. 결국 Gest 도서관 소장의 善本書目は 1941년에 맨처음으로 도서관 목록이 만들어진 후 33년만에 정식으로 완벽한 서목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것도 최종 정리 과정에서는 屈교수와 같은 大家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청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本書目的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이른바 ‘날림공사’식의 속전 속결 작업 태도로 인한 부작용을 생각할 때 커다란 땅 덩어리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의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세심하고 여유있는 업무 태도를 본받아야 되리라고 여겨진다.

Gest 도서관의 장서는 漢和圖書分類法에 따라 분류되어서 中國經學類(100~899), 哲學宗教類(1,000~1,999), 歷史科學類(2,000~3,999), 社會科學類(4,000~4,999), 言語文學類(5,000~5,999), 美術游藝類(6,000~6,999), 自然科學類(7,000~7,999), 農業工藝類(8,000~8,999), 總錄書誌類(9,000~9,999)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韓國 관계 書目は 역사 분야(2,185~2,187), 지리 분야(3,300~3,479), 어문학(5,973), 서목 관계(9,685~9,694)의 순으로 되어 있다.

Gest 도서관 소장 도서는 크게 善本 회귀본, 中國, 日本, 韓國 및 기타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회귀본으로는 明版을 중심으로 醫藥書가 가장 돋보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소장 도서라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經學部分의 易類·書·春秋·禮·樂·四書·小學·群經總義와 彙編을 총망라했고, 史學 분야도 編年·紀事本末·雜事·傳記·史鈔·地理·政書와 史評까지 들어 있다. 또 子部는 儒家를 위시하여 兵家·法家·醫家·術家·藝術·譜錄·雜家·類書·小說家·釋家 및 道家로 분류되어 있고, 集部에는 楚辭·別集·總集·詩文評과 詞曲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Gest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회귀 선본은 그야말로 東·西洋을 통털어 珍貴書의 寶庫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Gest 도서관에는 中國大陸과 台灣에 있는 여러 研究機關과 大學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중요 신문사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도서 출판사와도 교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1949년을 전후한 대부분의 필요한 도서는 빼놓지 않고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40여년간에 大陸과 台灣에서 출판된 각종 工具書와 研究論文集, 定期刊行物, 雜誌와 日刊紙까지도 대부분이 소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中國大陸과 台灣 사이의 學術交流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中國大陸이나 台灣의 어느 한쪽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가서 研究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편리한 점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 4

Gest 도서관 소장의 韓國 관계 도서도 역시 漢和圖書分類法에 의거해서 분류되어 있는데 歷史關係의 2,185~2,187번과 地理 분야의 3,300~3,479번과 語文學 關係의 5,973~5,975번 및 書目 關係의 9,685~9,694번 부분에 주로 배치되어 있다. 모두 9,000여 권에 달하는 장서 가운데



▲ 프린스턴대학의 Gest 도서관은 하버드대학의 燕京 도서관과 더불어 東洋學 연구의 寶庫로 널리 알려져 있다.

데는 承政院日記와 高麗史 및 李朝實錄,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 중요 史冊을 위시하여 한글대사전, 한국인명대사전, 무역연감, 경제연감, 한국교육연감, 한국총람, 삼국사기색인, 삼국유사색인, 정기간행물색인, 규장각도서목록, 국회도서관 장서목록, 延世大도서관 소장 古書目錄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웬만큼 중요한 도서는 거의 모두 소장하고 있으며, 일간지도 Korea Herald와 東亞日報는 물론이고 現代文學, 東亞文化 등의 월간지도 적시에 수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에서 발행되는 각종 서적과 The Pyong Yang Times와 같은 영문 일간지도 우송되어 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 서적은 '조선중앙년감'과 '김일성 동지의 로작색인', '대중과학사전' 등과 같이 선전 홍보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심오한 학술 분야의 전문 서적은 찾아 보기 어렵고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수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日本 관계 도서는 4만 5,000여 권에 달하는 장서를 확보하고 있으며 정기 간행물만도 1,000여 종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에 250여 종은 Gest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출자하여 日本으로부터 구입하고 있지만, 750여 종은 교환물로 수집되고 있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Gest 도서관 소장의 日本書籍은 中國 도서 다음으로 質·量 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日本 도서 가운데는 日本歷史 연구 관계 史料는 거의 빼놓지 않고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詩文 관계 문헌도 중요한 자료는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中國學研究에 관계되는 學報와 각종 논문집 및 辭典類를 포함한 각종 工具書 자료 이외에도 아세아경제연구소에서 편집한 現代中國關係中國語文獻綜合目錄과 각종 장서 목록 및 朝日과 讀年鑑과 각종 색인 등 그야말로 도서관에서 갖추어야 할 日本 및 中國 관계 연구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고루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日本 도서 가운데는 朝鮮研究 관계 문헌도 매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日本의 天理大學 朝鮮語學科에서 소장하고 있는 退溪先生年譜를 위시해서 粟谷先生遠接使時日記, 東國史略, 東國通鑑, 東國歲時記, 西浦年報와 三韓金石錄 이외에도 朝鮮年鑑 등을 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今西博士蒐集의 朝鮮 콘クション(Imanishi Collection of the Korean Historical Microfilm)의 한국 역사 관계 도서의 마이크로 필름이 123개의 상자에 넣어져 소장되어 있고 北韓의 평양 로동신문도 마이크로 필름으로 작성되어 소장되어 있는 점은 매우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日本의 朝鮮研究所에서 발행한 「朝鮮研究」와 天理大學 朝鮮學會에서 간행하는 「朝鮮學報」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소장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프린스턴대학의 Gest 도서관은 우리나라와 日本 및 中國學 연구에 관계되는 도서를 오랫동안 수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자료는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하버드대학의 燕京도서관과 더불어 東洋學 研究의 寶庫로 잘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東洋學 研究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음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이 분야의 연구에 적지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된다. \*